

로버트 치зом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3부 (A):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아모스 3-6장)

로버트 치зом 박사님이 아모스서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3차시 (A), 구원 역사의 실마리, 아모스 3-6장.

3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았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의 죄는 다른 나라들이 저지른 것처럼, 예를 들어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뜻, 곧 도덕적 뜻을 전달하셨지만, 백성은 약자와 가난한 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 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으며, 이는 왜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표적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제목을 붙인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다 읽고 나면 핵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는 그것을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적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한 함께 걷는다 는 말인가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함께하지 않은 한 함께 걷는다는 말 인가요? 당연한 얘기죠. 그들은 함께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입니다.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덩굴 속에서 으르렁거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굴에서 으르렁거릴까요? 그리고 답은 '아니요'입니다. 새가 미끼도 없는데 땅에 있는 텃으로 급강하하겠습니까? 새는 그냥 텃으로 급강하하지 않습니다.

뭔가 유인할 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땅에서 뿔이 솟아오르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온 논리적인 질문일 뿐이에요. 그런 질문도 있고, 무작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3절에서 사람들이 함께 걷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꽤 평화롭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걷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 후 그는 좀 더 두려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덤불 속에서 사자들이 울부짖고, 굴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새들이 급강하하여 뿔에 걸린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의 모습입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폭력과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니,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이 질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이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솟양 뿔나팔, 나팔, 쇼파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쇼파르를 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감지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주변을 살피며 어떤 종류의 침략군이 오는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나팔 소리가 갈등과 어찌면 전쟁이 일어날 징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읍에 재앙이 닥치면 주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정답은, 네, 물론입니다. 재앙이 성읍에 닥치면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편화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일반화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재앙이 닥치면,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적어도 언약 공동체와 이 나라,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도를 알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해, 이 맥락에서 저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말을 내뱉는 게 아닙니다. 꿈에서 꾸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저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며,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일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모스서 전체의 제목으로 선택한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장 2절에서 주님께서 포효하시며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올바른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쇼파르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쇼파르 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적군이 다가오고,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고, 사자가 울부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논리적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포효는, 적어도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모스의 요점은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고아의 목자였던 저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예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모스는 여러 면에서 자신의 사역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대변자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택하셨으니, 내가 말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도시에 재앙이 닥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이자 일반화처럼 들리는데, 사실 3절부터 5절까지, 그는 자연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고,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속담처럼 들립니다. 거의 속담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만으로도 사실임을 아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3장 6절이 보편적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도시에 심판이 임하고, 토네이도가 도시를 강타하고, 허리케인이 불어와 도시를 파괴한다면, 이 구절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글썄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서 그런가? 그들이 특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묻는 십니다. 아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교훈의 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심판은 타락한 세상에 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보편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맥락화된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려면 미국차를 사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차는 깎아내렸고, 미국차를 사야 한다는 거죠.

그건 아마 사실일 법한 일반화였습니다. 포드나 쉐보레에서 일한다면 그럴 겁니다. 네, 자동차가 어떻게 제작되고 엔지니어링되는지에 대한 맥락, 특정 시간, 특정 장소, 그리고 특정 상황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인 일반화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맥락화된 일반화였고, 이것들은 맥락화된 일반화이며, 이스라엘에도 적용됩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760년경, 특정한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백성에게 여러 가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호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760년쯤에 일어날 지진이 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분은 이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셨고, 당신은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쇼파르를 불 때, 여러분도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떨지 않나요? 예전에 DTS에 빌 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였고, 예배 때마다 항상 트럼펫을 불곤 하셨습니다. 제 요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브라이언 교수님이 달라스 신학교 마당에 나가서 트럼펫을 불기 시작한다면 온 도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맥락에서 트럼펫 연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도시에 재앙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아모스 시대에도 사실이었던 일반화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주님께서 하실 일을 고려할 때, 아모스는 만약 당신의 도시들 중 하나에 재앙이 닥치고,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다면, 어떤 도시에는 가뭄이 들고, 어떤 도시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게 말씀하셨고, 그건 또 다른 요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심판과 같은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한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비극들을 살펴보면, 그 맥락에서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에 재난이 닥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특정 도시에 재난이 닥쳤을 때,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 구절을 증거 구절로 인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보편화하고,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신학화했고, 저는 그것이 맥락화된 일반화이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학자들은 우리가 범인과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과성을 믿는 신학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에게 악마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범인과성, 그걸 좀 더 강조하자면, 강경 결정론, 범인과성, 즉 신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신이 이차적 원인들을 통해 여러 번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걸 강조한다면, 신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나 악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꼭 선한 분만은 아니시죠.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 출신 학자 프레데릭 린드스트롬이 범인과성, 즉 야훼 관점에서 악마적 존재라고 불리는 존재를 옹호하는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모든 구절들을 맥락에 맞춰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과 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범인과성, 즉 신적 범인과성 입장에서 사용되는 구절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5장은 주님께서 선을 창조하시고 악을 창조하시는 또 다른 예입니다.

라아를 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재앙이며, 주님께서 세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구원과 심판 모두에 대한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조차도 문맥에 따른 일반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린드스트롬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하반절의 의도는 청중이 야훼의 행위와 북이스라엘에 닥친 재앙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선지자가 모든 재앙을 야훼의 섭리로 돌리려 한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구절 들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그 구절의 맥락 과 우리의 경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원하시면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에 재앙이나 재난이 닥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저 일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은, 어쩌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방금 텍사스에서 있었던 홍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어 났을 뿐이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너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심판을 경험하는 도시라면 누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심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징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실 때조차도, 그분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때로는 그것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께서 회개를 하신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조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40일만 더라고 말씀하셨는지 의아합니다.

기회의 창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알겠느냐, 히브리어로, 누가 알겠느냐, 어쩌면 이 신이 마음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쩌면 신이 자신의 죄, 자신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에서 돌이키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끌어들여 회개하게 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끌어들여 회개하게 합니다.

그들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서, 동물들은 울부짖으며 동물들이 하는 대로 울부짖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

선지자 나훔은 요나 이후 약 100년 후인 7세기에 이 사실을 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결국 150년 후에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주님께서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그 일로 화가 났고, 사람들은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겁니다. 아니,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지난 세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네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두 번째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 하시며 ,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런 신이군요.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니네베를 되찾으려는 계획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 일로 매우 화가 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니느웨에 불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반화합니다. 때로는 "그렇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 때로는 심판을 집행하며 "너희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데, 이는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선지자는 없지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고, 니느웨 왕처럼 다가올 심판을 막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가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가?"라는 제목 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인 아스돗의 요새들과 애굽의 요새들에게 선포하여 사마리아 산에 모이게 하라. 매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봐, 사람들을 모아 사마리아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안에 큰 불안이 있고 그 백성 가운데 압제가 있음을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은 의를 행할 줄 모르며, 약탈하고 노략한 것을 요새에 쌓아 두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의 불의와 백성의 재물과 다른 것들을 어떻게 흠뻑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는 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원수가 네 땅을 휩쓸리라.

네 견고한 성채들을 헐고 네 요새들을 약탈하라. 그러니 잠깐만 여기서 멈추자. 그는 분명히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만연한 불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 말은, 나봇의 포도원이 도난당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와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압제를 보라.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불러서 구경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맏소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고, 모세가 와서 "그들을 놓아 주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 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모르겠소.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소. 그를 알지도 못하겠소. 그들을 놓아주지 않겠소."라고 말하며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네, 이집트인과 블레셋 사람들 말입니다. 역사를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압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압제자들을 불러들여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비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시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인들이 압제에 능숙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압제 현장을 보면 정말 압제에 능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와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들은 전문가 증인이 될 겁니다. "네, 이건 억압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비꼬는 투로 그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이나 블레셋인보다 더 악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동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듯이, 낙태 반대자가 히틀러와 그의 나치 추종자들을 초대해서 미국 낙태 시술소에서 벌어지는 살육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수사적 기법은 그 병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소각장과 비슷하다는 강한 암시를 던질 겁니다.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매우 모욕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글썄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상대로 제기하신 소송에서 그들은 그분의 전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행동의 본질에 대해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압제를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인과 블레셋 사람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다리뼈 두 개나 귀 조각만 건져내 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대 머리맡과 소파 천 조각만 건져내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쳐들어와 심판이 임할 때,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목자들을 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사자나 곰, 또는 맹수를 막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특히 밤에는 목자들이 밖에 나가 있어도 맹수가 양을 잡아가지 못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 체계는 그 점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목동 계약서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고, 주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목동은 자신이 양을 몰래 빼돌려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포식자가 양을 죽였다는 증거, 예를 들어 뼈나 다리뼈 몇 개, 귀 조각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양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다윗이 생각납니다 .

다윗은 “ 사자를 막았고 ,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구해냈어요 .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최고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사마리아를 지나간 후에는, 그저 침대의 일부, 소파의 일부만 남게 될 겁니다.

마치 포식자가 양을 잡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처럼, 파괴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 13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십시오.

복수형인데, 본문 초반에 모이도록 부른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증언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문자적으로, 전통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다소 고어적입니다.

군대가 뭘지 아세요? NIV 번역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뜻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 치바 오토’ (군대)는 군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자신을 전사의 왕으로 상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들을 헐어 버리겠다.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내가 여름 궁과 함께 겨울 궁도 헐어 버리겠다. ”

상아로 장식된 집들은 파괴될 것이며, 궁궐들은 허물어질 것이다 . 여호와 의 말씀이다 . 이제 이 심판이 왜 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고, 베델의 제단들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에 있잖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베델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야곱의 삶에 대한 꽤 긴 시리즈를 방금 끝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성읍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가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아주 멀리 밧단아람에 있을 때, 주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식 경사로를 보셨고, 그 꼭대기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숙임수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약속을 주었다면, 그의 아버지가 떠날 때 왜 "주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고 싶다."

야곱은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냥, 다시 말해, 내가 신경 쓰는 건 오직 당신뿐이에요. 내가 가는 이 여행에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거요. 그리고 말해 줄게요. 당신이 이 여행에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무사히 데려와 준다면, 내가 가는 길에서 얻는 모든 것의 10%를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당신은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아직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둥을 세우고 "그런데 , 그 기둥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교도적인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긴 이야기지만요.

20년쯤 지나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다시 데려오시며,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가족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이전에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곳을 정식으로 베델이라고 부르며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자신에게 가족 권력 정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에서를 뛰어넘어 가족의 으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가 에서와 맞붙을 때, 우리는 아모스를 공부하는 동안 야곱에 대한 작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베델에 대한 언급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에게 되돌려줍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그는 되돌려줍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그는 베델로 갑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언약을 확정하시고, 베델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처음에 일어났어야 할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자, 중요한 성소입니다.

그곳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 관계를 굳건히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한 곳이고, 심판이 베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의 집을 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베델의 제단들을 멸할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그들의 예배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등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델의 제단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그곳의 예배 체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미국에 심판을 선포하신 후 워싱턴 D.C.의 모든 건물을 어떻게 파괴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민족의 지위를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제단의 뿔은 잘려 나갈 것입니다. 고고학 사진에서 이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제단을 발견했는데, 제단의 각 모서리에는 제단의 뿔이라고 불리는 뿔들이 있었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고 망명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제단의 뿔을 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사법 당국 앞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뿔이 없다면 어떨까요? 뿔은 거기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실 거야. 내가 오면 네가 피난처로 삼을 곳은 없어질 거야. 너무 늦을 거야.

내가 베델의 너희 예배 체계를 파괴하고, 제단의 뿔들을 잘라버릴 것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도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문화권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플로리다에 겨울 별장, 북쪽에 남부 별장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일반화해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의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땅이나 다른 것을 획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겨울과 여름을 위한 집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집들은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북왕국 백성들 중 상당수가 왕처럼 살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는 그들의 탐욕과 착취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부정직하고 압제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한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 그는 "내 선조들은 궁궐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나는 겨울용과 여름용, 이렇게 두 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왕이 궁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왕국 시대에는 겨울용 궁궐과 여름용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집들에는 상아가 많았고, 이는 이 문화권에서 부, 특히 최악스러운 방법으로 얻은 과도한 부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를 얻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해왔고, 때때로 선지자들은 "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게 할 정도로 엄중합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소 새로운 내용이지만, 방금 언급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탐욕 과 그 사람들의 행실, 그리고 그들의 동기에 대한 간극을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암소 들어, 이 말을 들어라 . 바산은 동쪽에 있지만, 이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항상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 "저는 항상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정말요? 바산의 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남편에게 마실 물을 구걸하는 걸 보면 말이죠.

저는 이것들이 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마리아의 여인들, 사마리아 부자들의 아내들을 바산의 소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소들, 바산의 가축들은 강인하고 건강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은 소 사육 지역, 가축 사육 지역이었기에 이 소들은 건강했을 것이고, 어쩌면 살이 찼을지도 모릅니다. 도살과 제사를 위해 살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바산의 소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치 그들의 부를 말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도살당하기 위해 살찐 존재라는 암시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때때로 매우 비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는 여자들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남편들에게 "우리에게 마실 것을 좀 가져다주요." 하고 말하라. 뭐, 마실 것을 좀 가져다주라고.

다시 말해, 이 여자들은 남편의 억압적이고 불의한 생활 방식에서 이득을 취하며, 남편이 자신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주도록 부추깁니다. 이사야도 3장에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묘사하며, 마치 오래된 동전 카탈로그처럼 그들이 입는 모든 물건, 보석까지 나열합니다. 나열된 물건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것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치장하는지를 봅니다.

보석이 많고, 화려하고, 눈부시게 빛나면 아름다워질 수 있죠. 그게 바로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한번은 그 목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21가지 아름다움 외에도, 7의 배수, 7의 배수, 7의 배수 등, 그 목록에 언급된 품목이 몇 개나 되는지 맞춰 봤어요. 성경과 문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마치 완벽한 옷장 세 개를 가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지나치네요. 일곱 개면 충분했는데, 스물한 개나 됩니다. 아모스는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중에 유다에서 일어날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들에게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부추깁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습니다 .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함 으로 맹세하실 때 , 우리는 확실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 으로 맹세하시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여기서 그것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함이 이 사람들에게 정의가 내려지기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갈고리로 끌려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 중 마지막 남은 자는 낚싯바늘 로 끌려갈 것이다. 한 학자는 이 표현을 보고, 마치 바구니에 담긴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것과 같다고 결론지었다 . 어느 쪽이든 부정적 이다 .

주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오셔서 당신을 낚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낚싯바늘에 걸려 물고기 바구니에 실려 갈 것입니다.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이 비유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각자 성벽의 틈으로 곧장 빠져나갈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너희는 하몬 쪽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다, 허먼이 여기 있다"라고 읽길 원하지만, 너희는 유배를 가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소들이 왜 그렇게 살찐 걸까요? 누가 이들을 초대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불의했고, 얼마나 탐욕스러웠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원칙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정의에 대한 그분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하고, 종교적 전통에 안주할 때, 네, 우리는 여전히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장난감을 탐욕스럽게 쫓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기서 전개하시는 주요 논증이며, 우리는 4장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인 4절 부터 13절까지는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 유명한 구절, “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가 바로 이 맥락에서 등장 하며 ,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열 번째 재앙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치즈 박사님이 아모스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자 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2A 세션, 구원의 역사, 밝혀 지다 . 아모스 3-6장.